촛불항쟁을 닮은 시민혁명의 첫 효시

마산 3·15 의거 현장을 찾아서

글 · **김순천** timeksc@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국립3 · 15민주묘지, 2000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상징조형물인 3 · 15기념탑과 부조벽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민주 열사들의 묘를 이장하여 현재와 같은 묘역을 조성했다.

마산에 도착하니 봄의 향이 섞인 바람이 불고 있었다. 땅의 생명을 일깨우는 촉촉한, 아직은 꽃샘추위의 차가움이 섞인 공기는 나에게 많은 것을 떠오르게 했다. 갯 내음이 확 피어오르던 어시장, 내 살 한 조각을 내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풍성한 아구찜, 아직도 재잘거리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주주의 하자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소박한 마산 시민들. 물리학자는 역사학자와는 달리 시공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 않는다.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러 왔지만 나 또한 이번만큼은 역사적인 시간 구분을 하고 싶지 않았다. 49년 전 3 · 15의거의 모습이 오늘의 촛불항쟁과 한 현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생히 다가온다. 3 · 15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촛불 집회의 10대, 시민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항의 방식에 성스런 자극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억누르는 권력의 모습이 너무 닮아있어 피로감이 밀려온다.

3 · 15부정선거를 처음으로 저항했던 오동동 민주당 당사 앞

1960년 3월 15일 의거가 처음 일어난 오동동 거리는 화려하게 변해 있었다. 바닥에 3 · 15 의거가 일어난 장소라는 표시가 없었다면 그 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도 없었다. 민주당 마산시당부 이던 건물에는 보쌈집이 들어서 있었다. 그 날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미 부정부패로 권력의 정당성을 잃은 이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정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권력을 잡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부정선거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가 내린 비밀 지령에 의하면 총 유권자 중 4할을 투표용지에 자신의 당인 자유당 후보를 찍어서 미리 투표함에 넣어 놓도록 지시를 했고 야당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는 투표권을 주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거 날이 되어도 투표번호표를 받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여 민주당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3 · 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백한기)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는 3인조, 7인조, 9인조씩 짝을 지어 자신이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목격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선거와 비밀투표 제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다. 조를 짰던 사람들은 이미 선거 전에 자유당 사람들로부터 돈과 고무신과 쌀을 받았던 일반인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쌀 한 되박이나 고무신이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걸 받고 다른 사람 찍을까봐 공개로 보여주도록 한 것이다. 선거 참관인도 민주당 당원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자유당 당원이고 반공청년당 소속 간부들이었다. 민주당

3 · 15의거 발원지인 마산시 오동동 옛 민주당 당사 앞

참관인은 뇌물을 주고 포섭하든지 포섭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친이 죽었다고 하거나 다치게 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내 나이가 70세인데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나는 민주당, 자유당도 아닌데 왜 투표권을 안 줍니까?" 당시 마산상고 2학년으로 현장에 있었던 박종학(70세) 씨가 한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증언을 해 주었다. 그 날은 휴일이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투표는 하나마나 결과가 뻔했다. 부정선거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접한 시민들은 '이 따위 선거가 어디 있느냐?' 며 분노했고 민주당 마산시당은 오전 10시 30분에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시민들이 불종거리, 창동, 부림시장으로 몰려들자 경찰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해산시켰다. 남성 파출소 앞에 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은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발사했다. 국립3 · 15 묘지관리소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권민정(33세) 씨는 촛불집회 때 사용되었던 물대포가 3 · 15 때도 사용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물대포가 권력층의 다양한 권모술수처럼 연원이 오래되고 깊었던 것이다. 물대포를 뿌리자 시민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맞섰다. 하지만 조직력이 강한 녹색제복을 입은 반공청년단과 경찰 폭력으로 맞서기 어려워 저녁 7시에 개표를 하고 있는 시청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모두 흩어졌다.

시민들의 격전지 마산시청과 무학국민학교

부정선거를 계기로 시민들의 저항이 촉발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많은 억압이 쌓여서 일어났다. "집에서 담가 먹는 술도 적발이 되면 벌을 주었습니다. 자기 제사에 돼지를 쓰려다가 불법도축으로 걸려 매를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숨 막히게 했어요. 영업하거나 직장에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금, 벌금 등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힘들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놓았다. 선거 연설을 들을까봐 밖으로도 못 나가게 했다. 심지어는 일요일도 학교에 나오도록 했다.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선거원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한번은 친구 집에 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종학)

부모님으로부터 투표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막걸리나 고무신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사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잘 알고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당해온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뜻 앞에 서기를 주저했지만 학생들은 정의로운 감성으로 모든 상황을 맞이했다. 3월 25일 저녁 7시 시청에는 신마산, 구마산, 북마산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투표용지가 유권자들 수보다 더 많아 부리나케 태우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태우다 만 투표함 옆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놀았다.

무학국민학교 앞에서 시청 쪽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은 칼빈총을 장전한 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

시위대의 습격으로 파괴된 마산 산호파출소
자료사진 3 · 15의거기념사업회

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우리의 주권을 찾자"며 시민들이 밀려들었다. 밤 8시 10분 경 경찰들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맨 앞에 있던 김영호 등 학생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거의 동시에 남성동 파출소 앞에서도 총성이 울렸고, 지금은 없는 북마산 파출소에서도 총성이 울렸다. 무수한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이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다.

용공조작으로 두 번 죽임을 당할 뻔 한 희생자들

오후 늦게 찾아간 마산시 구암동 애기산기슭에는 그 당시에 산화해 갔던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2002년 합동묘 공원은 국립 3 · 15민주 묘지로 승격되었다. 12명 사망자 중 10명이 학생이었다. 한명은 일반인이었고 한 명은 오성원이라고 구두 닦고 가치담배를 팔던 젊은 청년이었다. 사망한 학생 중 김용실 군은 자신도 총상을 입었는데 어떤 노인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나중에 그가 죽은 것을 알고 간호사들이 놀랐다고 한다. 김영호 군은 벌이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 처지를 염려하여 낮에는 구공탄 배달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 이들 외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떴다.

자유당 정권은 이렇게 죽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3 · 15 의거를 공산당 개입에 의한 '좌익폭동' 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자신들이 총을 쏜 것은 먼저 폭도들이 위협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괘변을 늘어놓았다. 북마산 파출소가 불이 난 것도 폭도들의 짓이라며 길을 가던 선량한 시민 박세현을 붙잡아 고문을 통해 방화범으로 둔갑시켰다. 심지어 마산 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 노장현은 마산도립병원원장 박정석을 위협하여 시체실로 가서 숨진 학생들의 호주머니에 삐라를 넣었다. 그 삐라에는 '인민공화국만세' 라고 씌어져 있었다. 거짓말, 발뺌, 왜곡, 덮어씌우기, 조작, 이중어법, 자기기만, 시간 끌기, 뻔뻔함, 잔인 등이 한국에서 형성된 극우 권력자들의 마인드이다. 정말 책임져야할 윗선들이 다 빠지긴 했지만 3월 25일 발포책임자 경비주임 박종표, 남성동 파출소장 주임 김종복 등 5명이 구속되고 마산서장 손석래도 정식으로 입건되었다. 경찰의 용공조작으로 3 · 15의거가 거의 '좌익폭동' 으로 결론이 날 즈음 마산 앞마다에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은 모든 것을 뒤 엎어 버린다.

"만약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마산 시민들은 혹독한 변고를 치렀을 겁니다." (3 · 15의거부상자동지회 이양수 회장)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른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

1960년 4월 11일 오전 11시 쯤 홍합잡이를 하던 어부 김경영 씨는 괴이하게 생긴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했다. 그 물체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물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거룻배를 저어 물체로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른쪽 눈에 쇠말뚝이 박힌 사람의 시체였다. 10대로 보인 둥그스레한 얼굴은 차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 나중에 쇠말뚝은 최루탄으로 밝혀졌다. 그 시신이 3월 15일에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었다. 무학초등학교 옆 이모할머니 댁에서 시위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던 것이다.

내가 찾아간 마산 앞 바다는 고요했다. 그 당시 바다였던 곳은 매립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쌍용시멘트 회사가 세워져 있었다. 김주열이 발견되었던 바다에는 대한통운이라고 쓰여 있는 큰 배가 정박해 있었다. 지금은 위험물질을 하역하는 곳이 되어있었다.

김주열은 전북 남원이 고향이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집이 가난하여 상고를 가기 위해 마산에 있는 이모할머니 댁으로 왔다. 마산상고에 합격하고 입학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던 것이다.

김주열의 처참한 죽음은 곧 마산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제 2차 마산의거가 시작되었다. 부산일보 마산 주재 허종 기자는 이런 김주열의 모습을 단독으로 촬영하여 전국에 알렸고 이는 4 · 19혁명을 일으키는 데 마산의거와 더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타락한 독재자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되었고 그의 하수인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마산 중앙부두

3 · 15 당시 격전지였던 마산시 몽고정에 3 · 15의거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3 · 15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하자고 시민이 앞장선 데모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3 · 15의거는 민주주의의 효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이양수 부상자 동지회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3 · 15의거가 4 · 19에 가려 저평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마산시민의거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3 · 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백한기 회장도 말을 이었다. 3 · 15 당시 평범한 학생으로 참여했던 박종학 씨도 3 · 15 국가기념일 제정을 지지했다. 그와 더불어 그는 몇 가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면을 지적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기 3 · 15기념사업회 이사에 안영준이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안영준이 누구냐면 저를 체포해간 반공청년단 소속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3 · 15기념사업회 이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들은 다 숨겼다. 아직까지 반공청년단 인적사항이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들은 '3 · 15 의거사'도 폭도의 관점으로 왜곡했다. 무명으로 남은 많은 희생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박종학 씨는 기록이 정확히 정리되기를 바랐다.

글 **김순천** | 르포문학, 청계천 사람들 삶의 기록 『마지막 공간』과 세계화 시대 비정규직 사람들의 이야기 『부서진 미래』의 책임 저자